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호남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정치보복이자 지역감정 조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호남의 정치권이나 아방인 민주당의 목소리가 아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쓴소리다. 이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새 정부에 광주·전남의 정치적 현실은 참담하기 짙어 없다.

이 의원은 이 지방 곡선 출신이다.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한나라당에서 20년 넘게 당직자로 현신하다 비례대표 호남 뒷으로 이번 18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호남을 잇는 창구 역할을 자임하며 청와대나 정부, 한나라당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호남차별은 정치보복”

이 의원의 쓴소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편향으로 이어진다. 호남 출신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요직에 등용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 지도부에 인물을 천거할 통로

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20여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배출한 적이 없어 당연한 것 같지만 호남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홀대’ 노골화할 건가

해법은 최고 인사권자에게 호남 정서를 신속하고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실세 창구(학자인)의 개설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화합과 국토균형발전, 실용정치 차원에서 호남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쓴소리는 아니더라도 새 정부들이 호남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정치적 공황’에 빠져 있다.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서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현안사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도 예전 같지 않다.

지역사회에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크게 한 판 벌이겠다’던 서남권 개발계획은 후퇴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호남고속 철도 조기 완공도 빠져버리고 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온 광주·전남의 각종 현안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다. 영남에는 ‘대경권’과 ‘동남권’ 2개 권역에 10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광주·전남·전북은 ‘호남

양, 해남’의 J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해 졌고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약속과 원칙 반드시 지켜야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를 당초 2017년에서 2012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적기 완공’으로 끝갔다. 대통령의 입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정현 의원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호남 홀대는 또 다른 정치보복이자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말하겠는가.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약속과 원칙을 지키면 호남의 민심도 움직일 수 있다.

지역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광주·전남은 집단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군부대 철저 몇 십년도 견뎌왔는데 5년도 채 못된 세월을 참지 못하겠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무책임하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광주·전남을 홀대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논설장〉 dy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미국 정가에 립스틱 논쟁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돼지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기도 돼지는 돼지일뿐”이라고 말한 ‘립스틱’논쟁으로 베화하고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폐일린이 “하키판과 투견이 다른 점이 있다면 립스틱 칠한 거겠죠”라고 말한데 하지만 이것은 PR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PR은 일방적으로 자랑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공중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호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뉴스페이퍼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의 신문에 나도 편집은 일인지를 테스트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좋으면 그 일을 하고 멋있게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면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미국 정가에 자주 쓰이는 말이 ‘돼지입술에 립스틱 바르기’라면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호박에 줄긋

다는 말이 있다. 또 피(P)나게 알(R)리는 것이 PR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PR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PR은 일방적으로 자랑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공중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호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뉴스페이퍼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의 신문에 나도 편집은 일인지를 테스트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좋으면 그 일을 하고 멋있게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면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 축제이기도 하

돼지 입술에 립스틱 바르기

기’다. 최근에는 집권 여당에서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원색적인 비난인데 이제 이 정도는 일상사가 된 듯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토리 클리크 전 공보담당 차관보가 2006년 공보지침에 관한 책을 평가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돼지입술에 립스틱(Lipstick on a Pig)’이었다. 요지는 “나쁜 뉴스에 사탕벌집을 하는 것은 돼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처럼 소용이 없다”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진실은 하루라도 빨리 털어놓는 것이 정부 흥보의 상책이라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언젠가 새기 마련이며 따라서 먼저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총고를 담고 있다.

지금은 알릴 것은 알고 피할 것은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사례가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 사건이 대통령의 사임까지 물고 올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몇 년 전 미쓰비시 자동차는 자동차 결함을 축소 은폐하려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반면에 1982년 타이레놀 독극물 투여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위기 관리의 모델ケース로 꼽히고 있다.

이제 정부 경영, 투명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돼지 입술에 립스틱 바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호박에 줄긋기를 하고 있는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보해양조 홍보이사〉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만취자엔 ‘생명 위협’… 짐질방 이용 막아야

기고

홍지영



글로벌 시각예술 축제의 선두주자인 광주비엔날레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2008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의 복합적인 문화현상을 보고회 형태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례보고’를 미학적 담론으로 설정해 36개국 127명의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국내·외 언론과 미술 전문가들은 2008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이후 전시 기획과 내용에 대해 연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특별히 2008 광주비엔날레가 과격적으로 시도한 주제 없는 비엔날레, 재래시장과의재미술관 등으로의 전시공간 확대 등은 신선했고 참신하다는 반응이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 축제이기도 하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감상할 때는 지식과 논리로 다가서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서도록 하자. 내 맘대로 뛰집어서 생각해보거나 빠따하게 해도 좋다.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나서 작품해설을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자.

2008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10일을 넘기면서 안타깝게도 관람객들이 작품감상을 하면서 웃고 떠들거나 호기심 때문에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커다란 불상사는 없었으나 일부 작품들의 경우 경미하게 훼손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체관람이 집중되는 날이면 이런 사고는 더욱 자주 일어난다. 거액을 주고 작품보험을 가

현대미술 감상, 어떻게 할 것인가

지만 문화가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경험되어지는 장이다. 현대미술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비엔날레 출품작은 하나같이 어렵고 난해하다. 현대미술은 본질적으로 미술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보편적 규준으로부터 탈피를 피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 단일화된 원칙이나 세계관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예술양식과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기도 한다.

작품보호가 우선이고 관람객은 뒷전인 전시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객을 작품으로부터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전시가 되지 않으려면 주최측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성숙된 전시 관람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7회째를 맞으면서 매니아 관람객들이 형성될 만큼 국내·외 미술애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주최측은 관람관의 증진에 노력하고 관람객은 타인을 배려하고 작품보호에도 동참하는 전시 관람문화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광주비엔날레재단 홍보사업부장〉

보육시설 설치 규정 까다로워 기업들 회피… 규제 완화해야

지나치면 신경을 자극해 두통을 부른다. 또 이뇨 작용으로 탈수현상이 발생한다. 짐질방에서 땀을 더 뺀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탈수 상태에서 더 땀을 내는 끌이 돼 차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생활문화에서 짐질방은 또 하나의 휴게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장소를 건강하고 건전한 장소를 만들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빼드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문동

위치한 외부 놀이터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완화 규정도 있지만 도심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놀이터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니 기업들은 아래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혹은 보육시설을 50인 이하로 짓게 된다. 법규정이 부담스러워 아래 회피하는 것이다. 그 회피는 고스란히 맞벌이 부부에게 돌아가고 결국 출산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기를 바란다.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총동

시설

재배농 자살 부른 ‘나주배 사태’ 대책 없나

나주 배값이 폭락해 생산비조차 간지 못하게 된 재배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나주 왕곡에서 과수원 8천265㎡를 일대해 배 농사를 지은 박모(67)씨가 엊그제 극악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이 안타깝다.

가족들은 비료·농약대 등 경작비용으로 1천만원 이상 빚을 진 박씨가 주식 전 200상자를 출하해 15kg 상자당 4천 500원 끝인 9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에 낙심해 왔다고 한다. 나주배가 10% 이상 과잉생산된다 추석을 맞아 흥수출하되면서 값이 폭락한 것이다.

나주배 재배농민 대부분은 박씨와 비슷한 상황이다. 추석 전 예년 대비 20% 정도 밖에 출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상자당 4만5천원 하던 배값이 2만 원 아래로 폭락했다. 값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한 때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파장’ 최소화 대책을

추석 연휴에 더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이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뛰어 올랐고 주가는 폭락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금융공황’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은 심각하다. 어제 마감된 환율 1,160원은 지난 주에 비해 50,900원이나 폭등하며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환율이 종가 대비 20% 원·달러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뛰어 올랐고 주가는 폭락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금융공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비록 설(說)로 끝났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 ‘9월 위기설’을 부추긴다는 정부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외화 유동성의 확보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선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금융위기의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타격은 사태가 발생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크다고 한다. ‘런던맨털’의 문제보다 심리적 공황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은 가슴 조차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한동안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침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비록 설(說)로 끝났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 ‘9월 위기설’을 부추긴다는 정부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추석 전 처리’라는 시간표에만 얹매인 나머지 야당은 설득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 하는 우도 범했다. 여당의 힘 자체로는 일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추석 전 처리’라는 시간표에만 얹매인 나머지 야당은 설득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 하는 우도 범했다. 여당의 힘 자체로는 일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시 개최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일단

수가 ‘공멸의 정치’를 자초한 것이다.

여대로 예산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됐다. 그것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국민 세금을 다루는 일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정신 때문일 게다. 여당은 이번 일을 힘자랑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tbl_r cells="4" ix="4" maxcspan="1" maxrspan="1" used